

# 77주년 광복절을 KBS와 함께

KBS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 <아내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내들이 단순한 남편의 조력자가 아닌 주체적인 독립운동가였음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 프로그램이다.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등을 조직했던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아내 박자혜,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임시정부’ 요인을 지냈던 김가진의 며느리이자 한국독립당 당원 김의한의 아내 정정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의 아내 김우락 등 독립유공자 아내 4명의 활약을 발굴해 조명한다. 잊혀졌던 그녀들을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려졌던 ‘절반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취지이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어머니 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이경성 씨가 프리젠티어로 나서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의 스토리를 소개하는데, 당시 상황을 독백형식으로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저서 중 주요 대목을 낭독함으로써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8월 15일(월) 오전 11시 KBS11

## <컬러로 보는 우리의 얼굴>

“잊혀가는 역사를 생생한 현실로”

<컬러로 보는 우리의 얼굴>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KBS가 그동안 현대사 영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굴, 수집한 영상들 중 시기별로 의미 있는 필름 자료들을 선별하여 고화질의 컬러로 복원,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에 최초로 입수한 영국 영화사 브리티시 파테(British



김구 선생 연설 장면

Pathe)의 뉴스영화(Newsreel) 영상에서는 동양 최고의 비경으로 꼽힌 금강산의 절경과 내금강 지역 한국 최대 마애불인 ‘묘길상’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새롭게 입수한 하와이 포로수용소에서 줄지어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길고 참혹했던 전투에서 살아남아 연합군의 포로가 된 조선인 청년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해방 후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의 연설 장면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 현장에서 연설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모습 역시 선명하게 복원된 컬러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집 방송은 현대사영상프로젝트팀과 후반제작부, 미디어기술연구소의 노력이 합쳐져 가능했다. 철저한 고증과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접목한 보정 작업 과정 등을 거쳐 일제 치하에서 고난의 시대를 겪어낸 선조들의 삶과 잊혀져가는 역사 현장의 기록이 보다 현실감 있게 되살아났다.

▶ 8월 15일(월) 저녁 7시 20분 KBS11

##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대중가요> 2부작

8·15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대중가요>는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불리며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대중가요의 기록과 증언, 당시 활동했던 음악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한(恨)이 담긴 대중가요의 탄생과 배경, 그리고 격변기를 극복하며 전해져 오는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재조명한다.



8월 15일 방송되는 1부 <대중가요로 본 일제 강점기>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정치, 경제, 생활풍습, 문화 등 분야별 또는 역사적 연대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모습을 노래와 드라마를 통해 읽어본다. 또한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던 일본 동포들의 삶도 함께 다루면서 초창기 대중가요의 가치와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울 예정이다.

다음날인 16일에 방송되는 2부 <남과 북, 함께 부른 노래>에서는 분단 이전 남북이 함께 부른 노래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노래를 통한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 8월 15일(월)~16일(화) 오전 4시 한민족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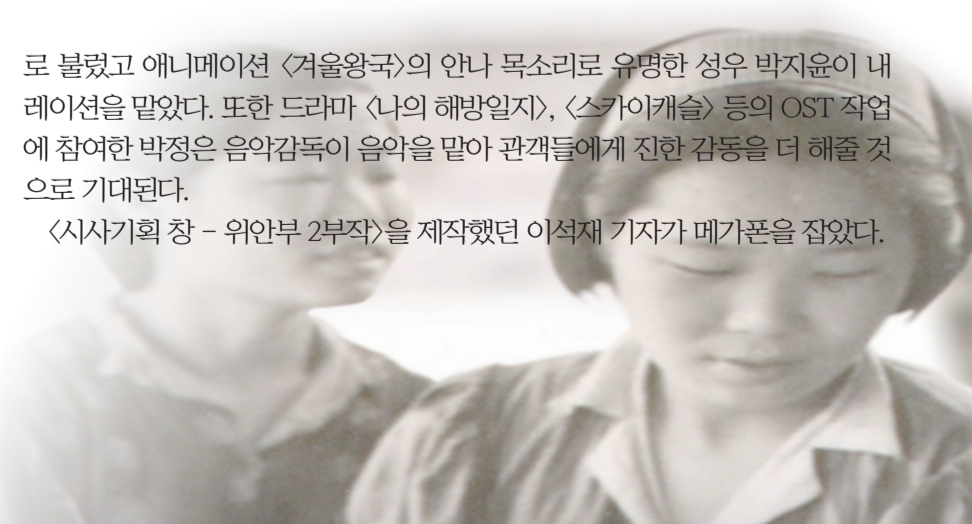
## <시사기획 창-위안부 2부작>… 영화 <코코순이>로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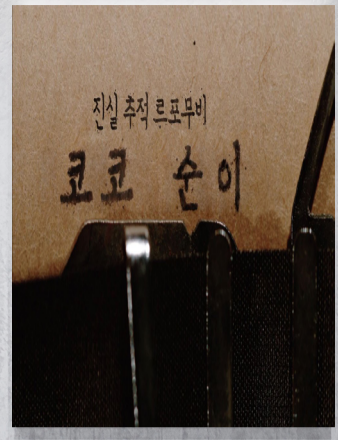
2018년 8월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시사기획 창-위안부 2부작>이 영화로 만들어져 8월 25일부터 CGV 등 전국의 개봉관에서 상영된다. 영화 제목은 <코코순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 전시정보국 49번 심문보고서’에 담긴 왜곡된 기록을 파헤치고 감춰진 진실을 찾는 추적 르포 형식이다. 영화는 이 심문보고서에 ‘코코순이(KOKO SUNYI)’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정확한 주소가 남아 있는 한 위안부의 행적을 찾아가며 지금도 거짓을 주장하는 이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코코순이>에는 유명 뮤지션과 성우 등이 제작에 참여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수 이효리는 직접 작사·작곡한 ‘날 잊지 말아요’를 엔딩곡으

로 불렀고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안나 목소리로 유명한 성우 박지윤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또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스카이캐슬> 등의 OST 작업에 참여한 박정은 음악감독이 음악을 맡아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더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기획 창-위안부 2부작>을 제작했던 이석재 기자가 메가폰을 잡았다.





<시사기획 창 - 위안부 2부작>에 이어 영화 <코코순이>의 메가폰을 잡은 이석재 기자에게 소감을 들어봤다.

Q <위안부 2부작>을 영화 <코코순이>로 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위안부 2부작> 제작 당시 아쉬웠던 취재와 제작, 후반 작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그 뒤로 틈틈이 관련 내용을 취재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다큐 영화로 재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배급사 측과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KBS 미디어 측에서 <코코순이>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상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재제작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순에는 인천교육청에서 별도의 시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코코순이>를 관객들이 어떤 영화로 다가가기를 바라시는지?

<코코순이>는 단순히 경상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미안마의 외딴곳까지 끌려갔다가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 내몽골 지역까지 가게 됐던, 그리고 생의

마지막 4년을 고향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코코순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면서 동시에 80년 가까이 집요하게 계속돼온 편견과 왜곡, 조작의 역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코코순이들을 찾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게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자들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Q 개봉을 앞두고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해주신 KBS 미디어 김형진 PD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통찰

100인의 리딩쇼 - 지구를 읽다

<100인의 리딩쇼>(이하 리딩쇼)에서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전국의 동네 책방 지기와 일반인 등 100인의 리더가 지구에 관한 책을 직접 낭독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2021년 7월 방송한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 100인의 리딩쇼> 파일럿 2부작이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은 데 힘입어 독서 다큐 7부작으로 정규 편성돼 다시 찾아왔다.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기후 위기와 이에 얽힌 평화, 생태, 자연의 이야기를 펼칠 <리딩쇼>는 <응답하라 1994>로 친숙한 배우 정우가 지난 파일럿에 이어 프리젠티어를 맡아 100인의 리더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아울러 '동네책방 네트워크'(독립서점들의 모임)와 공동으로 선정한 <지구를 살리는 책 30선>을 중심으로 주제에 걸맞은 텍스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100명의 리더들이 등장해 낭독하고 주제와 연관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다.

8월 27일 첫 방송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유빈 선수를 비롯해 탤런트 김미숙, 방송인 이금희, 음악 평론가 임진모 등이 출연해 <70억 개의 별: BTS 노래>라는 부제로 지구 생명의 아름다움과 노랫말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리딩쇼>는 지상과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엘리베이터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며, 전국의 동네책방에 '100인의 리딩쇼 서가 - 지구를 살리는 책 30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첫 방송 8월 27일(토) / 매주 토요일 밤 10시 25분 KBS11



# 아날로그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동네 한 바퀴 시즌2>

보물찾기하듯 동네 구석구석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딱딱한 삶에 따뜻한 위안을 전하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동네 한 바퀴>가 7월 23일부터 시즌2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시즌2에서는 씨름 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 씨가 새로운 동네지기로, '국민 엄마' 배우 나문희 씨가 스토리텔러로 나서 정감 있고 따뜻한 진행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즌1의 배우 김영철 씨에 이어 동네지기로 맹활약 중인 이만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Q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방송인에게 새 프로그램의 시작은 설레는 연애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동네 한 바퀴>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 가지는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기회인데 '동네 한 바퀴'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어떻게 끌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결심하고 시작해서 부산과 여수, 삼척, 흥천을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도 열혈입니다. 다행히도 동네에서 만난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

운 곳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 Q '동네지기' 이만기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제가 이야기하려니 부끄럽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이만기하면 대한민국 힘과 체력의 대명사 아닙니까?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야 하기에 체력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체력을 관리해 오래오래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친화력입니다. 항상 친근하게 어떨 때는 아들처럼, 어떨 때는 형처럼 대화하고 듣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예의 바르게 공경하며 내가 말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네지기가 되었습니다.

## Q 부산, 여수, 삼척 편이 방송됐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해녀 일을 하며 손녀를 키우는 부산 할머니, 섬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를 저었다는 여수 어머니, 부모와 남편을 여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삼척의 자매 모두가 애잔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 버스킹을 관람하던 도중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게 되



었는데,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장면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동네 한 바퀴>만의 매력이라 느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고, 앞으로 방송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사연들이 제 마음 속에서 글로 쓰여져 여러 권의 책으로 묶어질 것 같습니다.

## Q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선생님의 진행을 이어받은 터라 부담이 매우 큼니다. 그동안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소화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걸으면서 많이 보고 듣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면 저만의 색깔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격려도 좋고 채찍도 좋으니, 의견 주시면 귀담아 듣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10분 **KBS11**

### 제작기

# 총국간 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 지역 KBS 공동기획 대국민 힐링 콘서트 <올웨이즈 7000>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마지막 앙코르곡이 귓가에 들리는 순간, 무사히 끝나간다는 안도감에 다리의 힘이 빠졌다. 눈앞엔 3월부터 진행했던 일들이

생생히 스쳤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방송이 송출될 때까지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관객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 긴장감이 녹아내렸다. VOS 노래를 다시 들으며 <올웨이즈 7000>이 달려왔던 지난 여정을 회상하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올웨이즈 7000> 시즌2가 탄생한 건 지난 3월이었다. '전국의 KBS 총국들이 힘을 모아보자.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동제작의 기틀을 다져보자'를 목표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파일럿 프로그램 <올웨이즈 7000>의 명맥을 잇기로 했다. 4개 총국에서 진행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8개 총국에서 13명의 PD가 참여했고 공개할 문도 활짝 열었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시청자의 마음이 함께 노래하며 땀 뚫리길 바라면서.

초반부터 어려움은 있었다. 각 총국 PD들이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 부족한 인력 탓에 <올웨이즈 7000>만을 담당할 수 있는 PD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를 고정된 회의 시간으로 정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미리 의견을 전하기로 합의했다. 열의 넘치는 선배들은 최대한 회의에 참석했고 촬영 중 쉬는 시간 잠시 차량에서 전달 사항만 전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논의 끝에 '녹화 순서, 세트를 비롯한 리소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결정됐다. 프로그램 통일성을 위해 세트는 모두가 공유하기로 하면서 공동제작의 힘이 발휘됐다. 모든 총국의 세트 비용을 N분의 1로 내는 것. 물론 세트와 거리가 가까운 전주, 광주, 울산 상황이었지만 덕분에 제주총국의 물류비가 줄었을 뿐 아니라 제주로의 입도가 가능했다. (혹자는 한 총국에서 제작하고 전국으로 송출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선배들도 있었으나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트를 통째로 이동하며 지역민과 만나기로 결정했다.)

방향성이 결정되니 그 이후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각 총국마다 자신들의 컨셉에 맞는 가수들을 섭외했고,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했다. 그렇게 홍보 담당, 방청 신청 담당, 타이틀 제작 담당, 자막 담당 등의 분업이 일어났다. 모두 떨어져 있었지만 한 팀처럼 움직이며 녹화 준비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 13일. 첫 번째 문을 연 전주 공연에 모든 총국의 PD들이 모였다.

첫 단추를 잘 끼워준 덕분에 그동안 준비 사항을 서로 점검했고, 전주 방송에서 좋았던 점을 배워서 갖고, 여기에 더해 총국마다 어떤 새로운 점을 추가할지를 고민했다. 총국별로 어떤 점이 다른지 프로

그램을 보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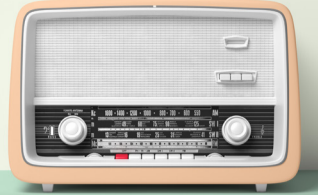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제작 기간 4개월. 7월 22일 창원을 끝으로 모든 총국의 녹화가 끝났다. 청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총국의 관객들이 만족해했다. 직접 다기와 고맙다고, 내년에도 또 해달라는 감사 인사를 전한 관객도 있었다. 이 맛에 방송을 만드나 보다.

각자 맡은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진행했던 <올웨이즈 7000>.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었지만 공동제작이라는 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편성 시간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 모두가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을 오후 1시에 편성하다니! 내년엔 꼭 저녁 시간대로 편성하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꼭이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빌어 함께한 모든 PD 선배들께 감사드리고, 무사히 녹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영상제작국, 기술국 선배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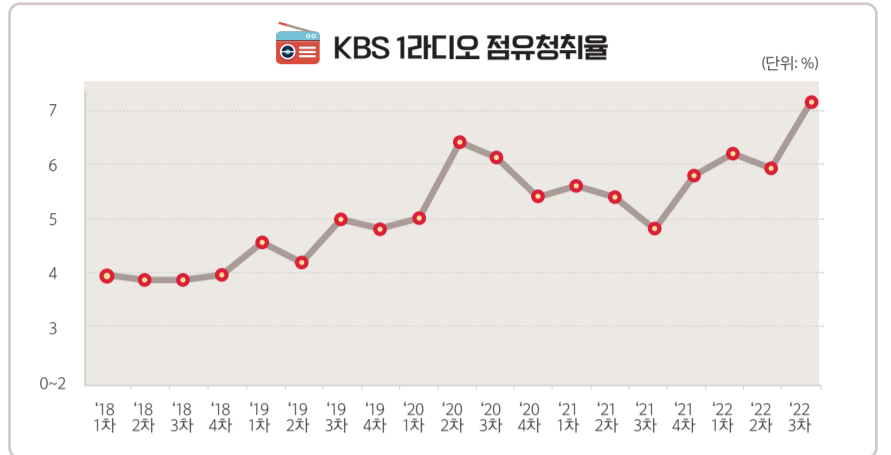
# 1라디오 점유청취율 7%... 역대 최고치

## 2FM은 채널 순위 한 단계 상승



2022년 3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 1라디오의 점유청취율이 2022년 2차 조사 때보다 1.2%p나 오른 7%로 2010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시사채널임을 입증해냈다.

1라디오 점유청취율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거점 프로그램의 동반 상승. <주진우 라이브>는 청취율 3.0%를 기록했는데, 이는 KBS가 1라디오를 뉴스전문 채널로 개편한 2018년 이전의 저녁 시사프로그램 최고 청취율(1.1%)보다 무려 1.9%p나 상승한 수치다. 또한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2.6%를 기록해 과거(2018년 이전) 아침 시사프로그램 최고 성적이었던 1.5%보다 1.1%p 상승하는 큰 폭의 도약을 보여주었다. <홍사훈의 경제쇼> 역시 프로그램 순위 100위권 밖에서 51위로 급상승했다.



이같은 청취율 상승은 1라디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가져온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새 정부 취임 이후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청취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FM(Cool FM)의 점유청취율도 직전 조사 때의 13.0%에서 13.8%로 상승하며 채널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도약했다. <조우종의 FM대행진>은 청취율 5.8%로 동시간대 2위를 차지했고 <박명수의 라디오 쇼>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는 동시간대 1위를 지켜냈다. 특히 <조우종의 FM대행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는 전체 라디오 청취율 순위 TOP10 안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확고한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각 채널의 선전에 힘입어 KBS 라디오의 종합 점유청취율은 25.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청취율 조사는 2022년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 정덕현의 TV 읽기

## 오은영 박사가 꿈꾸는 KBS와의 시너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방송가에서 오은영 박사는 말 그대로 대세 방송인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상담해주며 육아 전문 심리상담사로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한 오은영 박사는 최근 들어 그 상담의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지만, 적어도 KBS <오케이? 오케이!>의 경우는 그 취지와 의도를 분명히 납득시킨 바 있다. 제작 발표회에서 꺼내놓은 프로그램 출연의 이유를 통해서다.

“정신과 전문의로 32년 가까이 일하면서 인간이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 관계를 되짚어 보며 형질을 꺾매는 것처럼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시점에 저도 힘을 한 방울 보태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즉, 오은영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의 ‘공영성’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어찌 보면 KBS라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대국민 상담 서비스’를 그것도 스튜디오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할 나위 없는 기획 의도가 아닐 수 없다.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의성에 맞는 특산물을 소개하고, 그곳 사람들의 정겨운 삶을 포착해내는 걸로 그 오랜 세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는 이제 전국을 찾아가 여러 현장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때론 특정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 그것도 오은영 박사 같은 ‘국민 멘토’가 나섰으니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실제로 <오케이? 오케이!>는 첫 방송에 전 통시장을 찾았다. 그것은 어찌 보면 KBS의

그 많은 생활 정보 프로그램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친근함을 만들었고, 거기에 남들은 모르는 시장 사람들만의 아픈 사연들이 더해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감동적인 솔루션을 주는 오은영 박사의 진심까지 더해졌다. 첫 방송이 이후 화제가 됐던 ‘전통시장 아이유’라 불린 구효정 씨의 사연은 이 프로그램과 오은영 박사의 진심이 더해진 단적인 사례였다. 시장에서 일하다 결국 암이 재발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이 생계 때문에 자식들 돌보느라 때를 놓쳐서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가진 사연자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 오은영 박사는 그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가 일했던 그 시장이 그저 ‘생계’만이 아닌 삶 자체이고 또 ‘보람’이자 ‘자부심’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로 구효정 씨를 위로했다. 그 위로는 구효정 씨만이 아닌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다. 2회에서 찾아간 종합병원에서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다. 골육종 수술로 아직 걷지 못해 친구들이 모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열아홉 살 소녀나, 자신의 선택이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사의 에피소드가 그랬다.



물론 이제 시작인지만 시행착오를 하는 면도 보인다. 밤 11시 늦은 시간대에 방영하고 있어서 1%대를 기록하는 시청률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중장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송가인에 김호중 같은 트로트 스타들을 게스트로 출연시킨 부분이 그렇다. 물론 김호중 출연으로 시청률은 2%대까지 올랐지만 프로그램이 애초 갖고 있던 서민들 이야기보다 연예인 출연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 건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은영 박사가 KBS라는 공영방송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라고 보인다. 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진화해나아가야 하는 게 속세로 남았을 뿐.



## 360° 입체음향으로 생생한 음악 감상

**KBS Kpop 유튜브 채널 <사운드360°>**



최근 KBS Kpop 유튜브 채널 <사운드360°>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뮤직뱅크 '세븐틴' 편, 불후의 명곡 '이승윤' 편, 유희열의 스케치북 '포레스트라' 편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스마트폰과 이어폰(또는 헤드폰)만 있으면 마치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듯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

<사운드360°> 영상 댓글에는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 'KBS 감사합니다', '역시 KBS'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반응의 비결은 바로 '360° 입체음향 기술'. 지금까지 음악방송 영상은 음향을 좌, 우 2채널 스테레오로 만들어 송출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를 그대로 업로드해왔다.

하지만 <사운드360°>는 영화관의 서라운드 음향처럼 사운드를 좌, 우, 위, 아래, 뒤 등 다양하게 표현한 입체음향 기술을 유튜브 음악방송 클립에 활용했다.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은 스마트폰과 이어폰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착안해 이어폰을 통해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는 가상 사운드(Virtual Sound) 기술까지 적용했는데 이 점이 주요했다.

<사운드360°> 음향 제작업무를 매니징하고 있는 TV기술국 채항석 총감독은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영역이 OTT까지 넓혀지고, 오디오 콘텐츠에 관해서도 다양한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요즘, 이어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입체음향을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품질 입체음향을 무료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입체음향 VER

■ 이어폰/헤드폰을 끼고 들어주세요.

## 김의철 사장, 한국방송협회장 취임



김의철 KBS 사장이 제25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4월 1일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의철 KBS 사장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의철 사장은 한국방송협회장 취임 인사말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오랜 기간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는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근 공공미디어의 독립성이 정치·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의지를 모아 공적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협회 사무처를 이괄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김웅규 KBS 심의위원이 선임됐다.

## KBS 공개채용 정례화... 매년 1월 1일 임용

KBS가 올해부터 신입직원 공채를 정례화하고 매년 1월 1일 임용을 원칙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KBS는 정례화된 채용을 통해 청년 취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신입직원 공채는 PD, 기자, 아나운서, 방송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총 109명을 뽑을 계획인데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지역권 채용 비율도 전년에 비해 2.3배 높아졌다.

특히 올해 신입직원 채용부터는 기존의 객관식상시 시험을 폐지하고 상황 판단과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KBS 적성직무검사(KSAT)>가 처음 도입된다. 또한 현업 적응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실무능력평가(면접)도 강화된다. 신입직원 채용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세부 공고는 KBS 홈페이지(<https://recruit.kb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BS 교향악단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 개최



KBS 교향악단이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는 최대 5명의 청소년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청소년은 10월부터 1년간 피아티리 잉키넨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부터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도를 받게 된다. 지휘 피아노 세션, 앙상블 수업과 함께 다양한 개인 및 그룹 지도가 진행되고, KBS 교향악단 앙상블 또는 챔버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다. 또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리허설과 연주를 참관

하며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 피아티리 잉키넨은 "세계적으로 악기 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다"며 "핀란드에서 공부한 저의 경우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동시에 지휘를 같이 배웠는데, 이를 통해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앙상블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다. 이러한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력있는 지휘자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스터클래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는 2004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에 관심이 있고 악기 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8월 22일까지 KBS 교향악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오디션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교향악단 홈페이지(<https://www.kbssymphon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BS 사회봉사단, 오희옥 독립지사 위한 음악회 영상 전달



KBS 사회봉사단은 8월 5일 유일한 생존 여성독립운동가인 오희옥 독립지사(95세)를 찾아가 오 지사를 위해 제작한 음악회 영상을 전달했다. 오희옥 지사는 1939년에는 중국 유주에서 결성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광복군으로,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의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중이다. KBS 사회봉사단은 음악회 영상에 남원시립 어린이합창단의 '고향의 봄', 해맑은 아이들 중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수 나미애의 '눈물 젖은 두만강', 팝페라 그룹 컨템포디보의 '뮤지컬 영웅' 등 7곡의 노래를 담았다. 이정호 KBS 사회봉사단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희옥 지사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싶었지만, 병상에 계신데다 최근 코로나가 심해져 음악회 대신 정성스럽게 만든 음악회 영상을 전해드리고 쾌유를 기원했다"고 말했다. KBS 사회봉사단은 이와 함께 전주새마을부녀회에서 만든 김치와 서울강동구부녀회에서 준비한 강원도 찰옥수수 1,000여 개를 오희옥 지사 가족과 병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

KBS **전주방송총국**

# 지역방송의 역할에 관하여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한다. 2019년부터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으로 함께하면서 과연 스스로도 이러한 역할에 충실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지역방송총국은 지역 소식 보도, 지역 현안, 문화,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을 자체 제작하여 편성하고 있다. 지역방송은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지역방송총국의 역할은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역할에 있지 않나 싶다. 이러한 지역방송총국의 시청자위원으로 4년째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방송총국이 지역 현안과 문화를

지역민에게 알릴 충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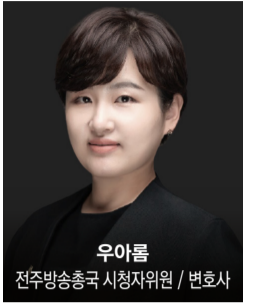
현재 KBS 전주방송총국의 경우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아침마당>, <백투더뮤직>, <투데이 전북>, <생방송 심층토론>, <생생 3도> 총 5개다. 지역의 제한적인 인프라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적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송의 존재가 아쉽다. 지역에서 제작하여 전국으로 송출하는 <백투더뮤직>의 존재가 고무적이긴하나 지역을 넘어서는 기획력과 제작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위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역방송에 기대하는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한지에서는 역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시청자들은 지역뉴스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지 않는다. 홈페이지의 VOD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방송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지역방송들이 떠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찾은 생존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자체 제작 영상의 대부분이 아직 조회 수가 200~400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단계이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지역방송이 지역방송만의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회는 지역방송총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에 높은 시청률을 요구하고 있지도, 흥미 위주의 오락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방송총국의 경쟁자는 OTT, 종편, 케이블 채널, 실시간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 유튜브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사회가 지역방송총국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역을 위한 방송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의 제작. 그것이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총국이 해야 할 일이다.



우아름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 / 변호사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창원방송총국**



<비밀회담>은 농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경남도민들이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상과 고민이 담긴 에피소드들을 가감 없이 풀어내는 본격 농어촌 토크쇼다.

2021년 5월 11일 첫 방송 이후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지혜를 꺼내어 보여주고 있다.

진행은 <별의별 중계>, <고고씽> 등 창원방송총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웃음을 선사한 방송인 이남미 씨와 시골 농부의 일상을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산농가 후계자 최형락 씨가 맡았다.

<비밀회담>은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감투를 하나씩 가진 농촌 사람들의 삶을 다룬 '단위장으로 산다는 것은'을 비롯해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

농쓰레기로 몸살 앓는 농촌 이야기 그리고 벼농사 경력 도합 130년의 패널리들이 말해주는 쌀의 맛있는 뒷이야기와 온갖 차별들을 거부하고 나선 여성 농민들의 이야기 '컨츄리 우먼 파이터', 도시 솔로보다 빛나는 농촌 SOLO들의 일상 등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농어촌의 적나라한 민낯까지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남에겐 고물이지만 나에겐 보물인 오래된 물건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빠다지'('서랍장'이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무더위를 피해 최근에는 잠시 스튜디오로 들어왔다"며 "새로운 세트에서 펼쳐지는 <비밀회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경남권) **KBS11**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 ‘태풍주의보’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 폭염이 시작되자 이제는 태풍인데요. 지난 달 말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바로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트라세>였습니다. 두 태풍 모두 급세 세력이 약해 지긴 했지만, 남해안엔 강풍이 몰아쳤고,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태풍인가 봅니다.

날씨 예보에서 ‘열대 저압부’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죠. ‘열대 저압부(TD)’는 태풍의 전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태풍의 씨앗’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씨앗인 열대 저압부가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발달하면 ‘태풍’이 됩니다.

태풍으로 발달하면 이름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5호 태풍 <송다>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의 이름이고요. 6호 태풍 <트라세>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딱따구리를 의미합니다. 태풍이 지금까지 이름 갖게 된 건 2000년부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이름보다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든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위원회에 속한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제출한 140개 이름으로 태풍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먼저, 회원국을 알파벳순으로 순서를 정해 놓고 태풍의 이름을 붙여 차례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을 쓰고 그다음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우리나라, 태국, 미국,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다시 1번부터 사용하는데요. 올해 가장 먼저 발생한 1호 태풍의 이름은 <말라카스>로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메기>, <차바>, <에어리>, <송다>, <트라세>에 이어 앞으로 7호 태풍이 발생하면 중국에서 제출한 <무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태풍은 연평균 25개 정도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그중 3~4개 정도의 태풍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 휴가철 태풍 예보가 있다면, 무엇보다 물놀이 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산의 계곡에선 물놀이 삼가야 하고, 태풍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에선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류에서 캠핑을 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엔 너울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갯바위나 방파제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본격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까진 폭염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밀어 올려 폭염의 기세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 길게는 10월 초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태풍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부부가 빛나는 최고의 짜배기 <삼태기도너츠>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맛집 기행

노중훈 여행작가

삼태기도너츠의 운영 주체는 충남 태안 출신의 아내와 충북 증평 출신의 남편이다. 아내는 반죽하고 반죽을 숙성시키고 숙성된 반죽으로 짜배기와 도넛의 모양을 잡는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을 받아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묻히고 손님에게 판매한다. 긴밀한 협업 시스템. 호흡이 척척 들어맞는다. 부부는 2010년 삼태기도너츠와 연분이 닿았다. 그전에는 왕십리에 소재한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약 13년 동안 떡볶이 장사에 매진했다. 부근에서 ‘무학초등학교 앞 떡볶이집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활황을 누렸다. 하지만 일을 도맡은 아내는 지쳐갔다. 너무 힘들었다. ‘일태기(일+권태기)’도 찾아왔다. 결국 가게를 내렸다. 휴식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300원짜리 떡볶이와 100원짜리 떡꼬치를 팔아

얼마나 벌었겠나. 좀 쉬다 다시 생업으로 복귀. 재차 꺼내든 카드는 떡볶이. 그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삼태기도너츠 바로 옆 식당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던 것.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 자리에서 장사하던 삼태기도너츠 사장님이 혼자서 하기에든 팬찮으니 의향이 있으면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간 배웠죠, 레시피도 받고, 상호도 그대로 쓰게 됐어요.”

짜배기와 도넛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다.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노동폭발적’이다. 끊임없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야 하며, 숙성 및 발효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손가락 마디, 손목 관절, 어깨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도 고충을 더한다. 카레크로켓의 중요한 재료 세 가지는 달걀, 양파, 감자. 2017년 달걀 파동이 일어났고, 이듬해에는 감자 가격이 경중 뛰었다. 인상분은 끝내 크로켓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니, 반영할 수 없었다. 삼태기도너츠가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저간의 사정과 두 분의 건강을 감안하면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삼태기도너츠에서는 기름에 절거나 눅눅한 빵 먹이 일이 거의 없다. 진열장에서 물건 빠지는 상황을 살펴 그때그때 튀겨내기 때문이다. 형편 달는 한 가장 좋은 기름을 사용하고, 반죽할 때 물 온도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불리는 삼태기도너츠. 당연히 단골도 많다. 제집 드나들 듯하는 어느 배우는 도넛과 짜배기 500개를 한꺼번에 구입해 촬영 중인 스태프와 연기자들에게 돌린 적이 있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한두 개씩 집어 드는 손님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일 년 동안 칼같이 발길을 끊었다. 부부는 우스갯소리로 ‘도넛 안식년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홀연히 다시 찾아와 기쁨이 배가됐다.

오랜만에 삼태기도너츠와 재회했다. 아내의 쉬운 반죽과 남편의 간단없는 튀기기. 여전히 빼어난 맛, 여전히 저렴한 가격, 여전히 친절한 부부. 확실히 단골을 양산하는 삼태기도너츠의 매력 중에는 주인 내외의 살가운 태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 나는 이번에도 결이 예술적으로 찢어지는 짜배기를, 반죽의 힘이 기세등등한 찹쌀도넛을, 서두르지 않는 단맛이 빛을 발하는 단팔도넛을, 소시지와 반죽이 환상적으로 결합한 햄말이를, 들뜨지 않는 매력의 환양금생도넛을, 꾸밈없고 소탈한 링도넛을 줄기차게 입에 넣었다. 확고한 철학과 확실한 반죽이 결합해 탄생한 최고의 맛이였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0길 11  
·전화번호: 02-766-1617  
·메뉴: 짜배기, 찹쌀도넛, 단팔도넛, 카레크로켓



# 로(Law)맨스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이지만 동네 백수처럼 살고 있는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의 건물에 17년간 짝사랑한 그녀, 김유리(이세영 분) 변호사가 역대 연봉의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와 법률사무소 겸 카페 '로(Law) 카페'를 차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알콩달콩 로맨스 드라마다.

최근 <배가본드>, <마우스> 등에서 굵직한 연기를 선보였던 이승기는 극 중 스마트함과 허당미를 넘나드는 괴물 천재 건물주 김정호로 완벽 빙의해 '이승기표 로코'에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로맨스 사극의 열풍을 주도한 이세영 또한 현대물 컴백작으로 선택한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미모와 패션, 정의감에 이르기까지 한도 초과의 열정을 내뿜는 변호사 김유리

로 공익소송에 올인하며 자본 논리보다 소신에 집중하는 '법조계 이단아'의 면모를 선보이게 된다. 한편 이승기와 이세영은 <법대로 사랑하라>를 통해 <화유기> 이후 4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됐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으로 '연애를 기대해', '죽어도 좋아'의 이은진 PD가 연출을, KBS 드라마스페셜 2020 '원나잇'을 통해 탄탄한 필력을 선보인 임의정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제작진은 "이승기와 이세영은 '대딩 승기, 대딩 세영', '고딩 승기, 고딩 세영'까지 찰떡 소화 가능한 배우들"이라며 "새로운 '비주얼 맛집'이 될 '법대로 사랑하라'에 무한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첫 방송 9월 5일 예정 /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 50분 **KBS**